

신안군에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들어선다

군, (주)원건축과 신축 사업 투자 협약식 체결 팔금면 일원 국내 최고 수준 숙박시설 등 조성

신안군은 2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주)원건축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팔금면 일원에 고품격 관광숙박시설 신축 사업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으로 (주)원건축은 팔금면 일원 약 3천 평 부지에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 풀빌라 등의 숙박시설과 함께 상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신안군은 행정 업무를 협조 및 지원할 계획이다.

팔금면은 안좌면, 암태면, 자은면과 함께 신안군 중부권에 있는 지역으로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조성, 안좌면의 퍼플섬, 세계화석광

물박물관, 플로팅미술관과 암태면 에로소스작 박물관, 자은면 뮤지엄파크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돼 있다. 수십만 명이 찾는 명실상부한 신안군 대표적 관광지역으로 이번 협약은 부족했던 숙박시설이 착공됨으로써 머물러가는 양질의 관광 숙박 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주)원건축은 국내 유명호텔과 동급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완공 후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농·수산물 구매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고품격의 숙박시설 확



중으로 신안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편안한 휴식과 행복을 담아가며, 다시 찾고 싶은 신안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필리핀 LCS그룹 신손 회장, 영광 대마산단 방문...협약식

영광군은 22일 필리핀 LCS그룹 신손회장이 영광 대마산단에 방문하여 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e-모빌리티 해외수출을 위한 각종 사항들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대마산단 기업 관계자들과 영광군 오귀동 S전략산업실장, 정창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장,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이득은 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필리핀 LCS그룹은 필리핀 재계 서열 10위권의 대기업으로 주력사업인 부동산 개발을 비롯해 광산, 운송, 방위산업,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대마산단 내 e-모빌리티 기업지원 인프라 견학과 산단 기업 제품을 필리핀에서 현지 생산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생산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올해 상반기 공모 예정인 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영광 e-모빌리티 제품의 해외수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경기자



"목포역, 서남권 랜드마크" 목포시, 신축 설계 공모 나서

목포시는 코레일의 목포역 신축사업, '호남선 목포역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목포역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 1978년 지상역사로 건축된 이후 46년 만에 목포역을 신상역사로 새롭게 신축한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주관하는 목포역 신축 설계공모는 지난 21일 시행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5월 28일 작품심사를 거쳐 같은 달 31일 당선작이 결정된다.

당선작은 개별 통보되고, 관심있는 경우 오는 6월 3일 한국철도공사의 작품전시 기간에 당선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선작 선정 후 15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0만549㎡, 사업면적 4231.8㎡ 내외이며 설계공모 과정에서 선상역사 규모(2~3층)가 결정된다.

총사업비는 490억원(국토교통부 40%, 한국철도공사 60%)이며, 추정 공사비 345억5000만원, 추정 설계비 24억5400만원, 기타 부대공사 등은 별도 발주로 추진된다.

목포=송준표기자

영암 음식점, 다음달부터 신메뉴 4종사 선보인다

영암군, '먹거리 육성 메뉴 전환 컨설팅' 결실...오리훈제편백떡 등 판매

오리훈제편백떡, 돼지직화불고기, 소머리국밥, 돼지머리국밥, 신메뉴 4종사가 영암군의 새로운 먹거리로 관광객과 만난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의 '먹거리 육성 메뉴 전환 컨설팅'으로 개발된 새로운 메뉴가 3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손님과 만난다.

이 컨설팅은 영암 음식점 경쟁력 강화와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사업.

영암군의 지원과 음식점의 혁신 노력이

더해서 영암읍의 월출산산장식당은 오리훈제편백떡을, 국일관희집은 돼지직화불고기를, 영미왕족밥은 소머리국밥을, 덕진면의 진미식당은 돼지머리국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주메뉴를 보완하는 새 음식 개발을 희망했던 4개 업소에 컨설팅이 진행됐다.

컨설팅은 음식점 사전 답사에서 각 업소별 메뉴 구성, 상차림, 위생관리 상태 등을 분석

한 다음, 주방 조리 동선과 음식 내오기도 고려해 최적의 메뉴를 전수했다.

전수받은 레시피로 음식점 운영자들은 지난 2달 동안 실전으로 조리과 판매 연습도 마쳤다.

동시에 각 가게를 찾는 중요 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영암군은 경영컨설팅도 각 음식점에 지원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업소별 보완·요청 사항을 반영해 신메뉴가 전수됐고, 기존 메뉴에 더해 관광객과 주민에게 차별화된 영암 먹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음식을 먹은 손님과 관광객의 호응도를 분석해 더 많은 음식점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상반기 정기교육

함평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교육은 '먹거리 안전관리 감시체계 강화' 및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적합한 지식과 자질을 갖춘 우수 감시 인력을 육성하고, 위생업소 수준 및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16일 실시됐다.

교육 내용으로 △감시원 자격 및 임무 △감시원 활동-감시요령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신고 요령 등으로 감시원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8명의 감시원들은 함평군 관내의 식품위생 상태 지도·점검, 부정 불량식품 감시활동,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군,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실시



무안군은 지난 22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일반위탁 부모(친인척)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 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위탁부모로서의 자질 교육, 아동학대 예방, 자립지원교육, 가정위탁지원사업 안내 등의 주제로 실시하였다.

김산 군수는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위탁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탁가정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